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건립 착수

대촌동 도시첨단산단... 320억 들여 내년말 1차 완공 광주 에너지산업 견인·에너지밸리 조성 탄력 기대

광주시가 에너지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한국전기연구원(KERI) 광주분원이 건립에 들어갔다.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건립되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입주에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 역점사업인 에너지밸리 조성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은 25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부지에서 광주분원(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 건립 착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원, 광주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대표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KPS, 한전 KDN 등 유관기관, 관련 업체 대표 및 지역주민 등 600명이 참석했다.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은 광주시의 핵심 산업인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변환 시스템 기반 구축과 전력변환 및 스마트 배전 핵심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지원을 중점 담당하게 된다.

특히 연구원의 핵심기술을 이용한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력변환, 스마트 배전 분야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광주분원은 사업비 320억원이 투입돼 3만평 규모로 들어서며 2018년 말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분원에는 1차적으로 전력변환연구시험 업무에 관한 연구동과 실험동, ESS 시험동, 태양광성능시험동 등이 들어오고, 이후 사업비 확보를 통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실험동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부지 등 전기연구원의 차세대 연구시험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국비와 민자 등 1345억원을 들여 한전, 효성 등과 함께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들어갔으며 HVDC 시험평가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전력계통 안정형 에너지 저장 및 직류배전 기술개발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에너지밸리 전용산단에 가장 먼저 첫 삽을 뜨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은 광주의 희망이자, 미래를 함께 열어가 동반자”라면서 “분원은 대전력 중전기 분야, 대용량 전력변환기술 및 HVDC 등 에너지산업에 이끌리며, 전기차 관련 부품기업들이 광주로 몰려드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송재성 부원장은 “향후 광주분원이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대형 성과창출 달성’과 국토 서남권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전력산업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한편 빛고를 광주가 한국전기연구원으로 인해 한층 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착공식 25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열린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착공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시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도로경계-공동주택 외벽 거리 제각각 ‘방음 애로’

정책토론회서 주장 ... 유지관리비 선정기간 확대해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공도로 내 방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완충 공간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30년에서 6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도로 내 방음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유선엔지니어링 이이수 호남본부장은 “도로 경계선과 공동주택 외벽까지 거리가 짧게는 6m, 길게는 70m로 들쭉날쭉하고, 지역 특색에 맞지 않는 디자인, 유지관리비 할 세 낭비, 도시미관 저해와 조망권 침해가

지 방음시설이 지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 ▲완충녹지와 공공공지 등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유지관리비 선정기간을 성능평가(30년) 2주기에 해당하는 60년으로 확대할 것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토 등을 주문했다.

김동현 광주경찰서 사무처장도 “간선도로 인근에 공동주택 건축을 인·허가할 때 최소 이격거리 규정을 뒤 소음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음벽과 방음터널 관련 소음 규정은 현행 주택법에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1~5층은 65dB 미만, 6층 이상은 45dB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모든 층의 외부 소음도를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55dB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주택법이 적용되지만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다.

김남규 광주시 도로과장은 “공동주택 인·허가 기관과 환경정책 부서에서는 소음측정과 평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상호 시 주택담당 사무관은 “사업 승인 시 주택담당 부서에서 한 예측 결과와 사용검사 단계에서의 측정치가 다를 수 있고, 입주 후 차량증가 등으로 소음도가 높아지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국토,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간선도로면 공동주택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서는 2012년 2월 복구 운암동 벽산빌루미 아파트 2, 3단지 250m 구간에 56억원을 들여 소음방지 터널을 설치하는 등 2000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260억원을 투입해 방음터널 8개소 2.9km, 방음벽 106개소 25km가량이 만들어졌거나 공사 중이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관용차 주말·휴일에 시민이 무상사용

내년 3월부터... 조례안 통과 482대중 40여대 시범운영

광주시 관용차를 주말이나 휴일에 운행하지 않을 때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주경남(민·서구4) 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시 관용차량 공유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12인승 이하 관용차량을 시민이 무상으로 여가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탈북민,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요금,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는 신정일 기준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운영 시 예상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소제 문제점에 대해 세부기준을 만드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광주시는 승용차 78대, 승합차 56대, 화물차 84대, 특수차 199대, 전기차 45대, 수소차 20대 등 총 482대의 관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중 필수차량 등을 제외하고 40여대가 시범운영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용차 105대를 이용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달 평균 140명이 이용하며,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오늘 나주시 개막

33개국 490개 기관·단체 참여

2017국제농업박람회가 26일 개막한다. 박람회는 다음달 5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운영 전반을 공개했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아이쿱(iCOOP)생협, (사)광주·전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전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그동안 관 주도로 진행되었던 국제행사를 처음으로 민·관 협력 시스템으로 전환해 관람객 시각에서 공감대 높은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3회째 진행되는 국제행사인 만

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박람회 성격 강화와 관람객들에게 농업의 쉽고, 재밌고, 가치 있는 산업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준비된다.

주제관인 ‘농동마당’에서는 박람회 마스코트 쌀이와 공이가 함께하는 3D입체 영상 등을 통해 미래 농업의 가치를 소개한다.

또 힐링 농업과 6차 산업화의 성장 가능성이 다룬 ‘전시체험 마당’에는 관람객들이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농업의 선진기술을 전시하는 ‘혁신기술마당’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전시가 아닌 스마트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무인드론을 날려 보는 등 전시만 곳곳이 체험학습 공간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33개국 490개 국내외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관람객을 45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시아나 29일부터 무안~제주 노선 증편 1일 2회 운항

무안~제주 간 항공 노선이 증편된다. 아시아나가 무안~상하이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무안~제주 노선을 신설한 것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29일부터 매일 왕복 1차례씩 무안~제주 정기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이에 따라 제주노선이 1일 2회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노선 유치와 중국에 치중했던 국제노선의 다변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정기 해외노선의 신규 취

항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코리아이스프레스에서 여항공에서 일본의 돗토리현과 기타큐슈를 오가는 2개 노선을 개설해 운항을 시작한다. 또 필리핀 보라카이를 운항하는 부정기 노선의 정기 노선 전환도 예상된다. 팬퍼시픽 항공사는 매주 수·토요일 운항하던 것을 히니문 시즌인 다음달 4일부터 목·일요일로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기 노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 대상용역 | 규격 |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 2017. 1. 1. 부터 출고되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 비고 |
|--------------------------|---------------------|----------------------------------|---------------------------------|--------------------|
|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제품 | 190ml 미만 | 20원/개 | 70원/개 | 소형 마-라미 등 |
| |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맥주(대형) 등 |
|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대형 청주 등 |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